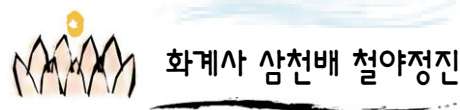


‘부처님이 되는 시간’ 가장 나답게 살아가기 발원



화계사 삼천배 철야정진

서울 수유리 화계사주지 수행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3천배 철야 정진을 한다. 화계사 신도들과 각 처에서 모인 불자들이 3천배를 하며 마음을 닦고 있다. 이번 3천배 철야정진에 참여하게 된 것은 불력회 인터넷 카페(cafe.daum.net/buddhapower)를 통해서다. 수행을 통해서 참된 불자가 되자며 절 수행과, 참선, 독서모임 등의 활동으로 불력회(회장 박종린 법사) 회원들이 8월 한 달 정진을 회향하며 화계사에 모였다. 이번 3천배 철야 정진에 앞서 박종린 법사는 “일체존재의 근본이자 나의 참 생명인 부처님이 되는 시간인 기도는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으로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고 말했다. ‘내 속에 깃들여 있는 나의 참된 힘이 바로 부처님힘(佛力)’이라고 말하는 불력회의 철야정진에 동참했다.

#살림

삼천배 철야정진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렇게 답다고 열음을 들고 살았는데 그날 저녁은 바람도 불고 서늘했다. 버스에서 내려 화계사까지 걸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이모 따라서 철야정진을 갔던 때가 떠올랐다. 철야정진이란 것을 처음 했는데 이모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자다가 스님께 죽비로 몇 번 맞았던 추억을 대뇌하면서 흐뭇해했다. 그런 내가 혼자, 그것도 밤에 정진을 하러 간다니 신기하면서 기분 좋았다.

지금까지 절을 제일 많이 한 것이 108배인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다리는 괜찮을지, 3천배를 하면 소원을 이룬다는 말을 들었는데...하는 생각을 하면서 절 일주분 앞에 도착했다.

합장 반배하고 법당으로 가는 길 시냇물소리가 나를 반겼다. 감감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왼쪽에 흐르는 물소리가 맑고 시원하게 다가왔다.

법당에 모인 50여명의 불자들은 엄따 따라 온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했다. 웃을 갈아입고 시간이 남아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으니 산사의 여동사 이로 편안함이 내려앉았다. 화계사 옆을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면서 ‘참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목탁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이 들어오셨다.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시고 관음정진을 시작했다. 화계사 대적광전을 찾은 50여명의 사부대중이 다 함

께 관세음보살을 읊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음정진과 죽비소리에 맞춰 절을 시작했다.

원래 절을 하면서 숫자를 헤아렸는데 이번에는 세지 않았다. 수를 세니 절하는 것에 집중이 안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을 할 때 염주를 사용하느냐 보다 생각했다. 절하다 보니 어느새 50분이 지나갔다.

옆에 보살님의 말에 의하면 50분에 500배를 하고 10분을 쉬고 했다. 그렇게 9시부터 3시 까지 여섯 시간 진행된다고 했다.

일단 500배를 하고 나니 몸이 가벼웠다. 그동안은 108배만 해도 힘들었는데 왜 안 힘든가 생각했다. 첫 번째는 수를 헤아리지 않아서 인 것 같다. 이번에는 한배, 한배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얼마나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죽비소리에 맞춰 다 같이 절을 하니 ‘절이 절로’ 됐다. 세 번째는 관음정진을 하니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가 맞물려 효과를 내는 시간이었다. 중간중간 숨이 차올랐지만 이런 시너지효과 때문에 무사히 500배를 마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계속 하자 마음먹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하니 힘들어도 재미

사람 일은 인과응보이고 인연법이 있다는데, 지은 대로 받을 것이고 인연이 있는 곳에 가 닿겠지란 생각이 들었다.

나약함이나 두려운 생각이 다 버리고 싶었다. 관세음보살 정진과 마음속으로 ‘비우겠습니다. 비우겠습니다’를 되뇌이면서 절을 계속했다.

땀은 났지만 정신이 더 맑아졌다. 그렇게 죽비소리만 내면 무릎을 법석에 내리치고 절을 하고 또 했다. 어느 순간에는 머리 정수리 부분이 시원했다. 처음 느껴본 시원함에 절을 하면서 신기하기도 했다. 분명 땀은 나는데 어딘가 모르게 시원하고 몸이 가벼웠다. 그렇게 두 번째 시간이 끝났다.

‘그럼 1000배나 한 거야?’ 하면서 속으로 신나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돌아보게 됐다. 내 마음하나 못 다스리면서 무슨 소원은 소원인가 하면서 참회했다.

#메뚜기보살

세 번째 시간이 됐다. 천배를 하고나니 다리의 통증이 있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참나 스님의 죽비소리와 관음정진이 시작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니 두 번 할 거 한번 하게 되고 자꾸 속도가 늦어졌다.

장단지 근육이 팽팽해진 느낌이었다. 순간 열드린



화계사 대적광전 3층법당에서 삼천배 철야정진을 하는 신도들.



주고 있을때 귀를 때린 메뚜기보살.

500배... 1000배 낮은 기온과 바람을 뚫고 몸에서 땀이 흘렀다, 지난날의 일들이 떠오르며 잘못들과 여러가지 감정이 올라왔다

가 있었다. 또 이번처럼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불러본 적도 없었다. 신기함을 많이 세운 시간이었다.

#참회

1000배를 향해 가다보니 낮은 기온과 바람을 뚫고 몸에서 땀이 흘렀다. 다리의 근육도 아파왔다. 그 때 근함과 함께 문득 그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담고 살았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올라왔고 털어버리고 싶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런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고 비워냈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팬스레 눈물이 났다. 지난날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잘못들도 생각이 나고, 또 여러가지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싶었다.

채로 일어나기 싫었다. 입으로 관세음보살 정진은 하면서 옆에서 있길 그대로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 와서 내 머리를 부채로 치는 것이다. ‘아’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났다.

옆에 스님이 계속 줄 알았는데 메뚜기가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메뚜기의 모습에 한번 더 놀랐다. 반수면상에서 ‘메뚜기 날개짓’을 ‘부채’로 느낀 것이다. 분명 부채인줄 알았을 때는 스님의 가사가 내 옆을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메뚜기라니, 놀란 마음이 쑥 사라지면서 메뚜기가 한발 두발 내게로 왔다. 메뚜기가 ‘수행하러 왔으면 자세라도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 좌복위를 걸어 다니는 메뚜기가 귀여워 보여 그냥 됐다. 메뚜기는 주위를 몇 바퀴 더 걸어다니더니 또 그 날개짓을 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보니 좋고 있는 다른 보살님에게 갔다.

보살님도 훌쩍 놀라시더니 메뚜기가 올라탄 좌복을 밖으로 가져다 날려 보냈다. 메뚜기보살이 좋고 있는 나를 깨우려 왔나보다.

#한계

그렇게 메뚜기가 다녔던 뒤 난 한참 앉아 있었다. 그러다 자연스레 내 주위에있는 사람들을 돌아봤다. 저 사람들이 모두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바르다음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다. 내가 앉아있는 동안에도 절을 하는 그 사람들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길 기도했다. 그렇게 나는 1500배도 다 못채우고 메뚜기와의 만남 뒤로는 쪽아이 있었다.

삼천배 정진이 끝난 시간은 새벽 3시 30분이었다. 웃을 갈아 입으려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는데 얼룩진 세면대가 보였다. 비누 물은 수세미로 세면대를 닦았다. 깨끗하게 닦고 법당으로 다시 갔다. 조금 있으니 도량석과 함께 새벽예불이 시작됐다. 비가 내렸는데도 화계사 스님들과 또 화계사 주변에 사는 신도

분들도 참석했다. 예불이 끝나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런 너무 졸려서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버스에 올라탄 순간부터 잠에 취했다.

#파스향기

일요일 아침에 집에 도착했다. 샤워를 하고 누우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잘 자고 나서 일어나려는데 다리 근육이 더 아파왔다.

근육통 치료되는 파스를 찾아 옥상에 가서 뿌렸다. 파스 냄새가 얼굴까지 덮어 몇 번을 ‘픽픽’ 거렸지만 시원했다. 그리고 나서 거실에 앉아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가족들의 원성이 들려왔다. 그새 파스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워버렸다.

원성이 들리고 다리는 아팠지만 좋았다. 나는 그대로 었지만 그 때의 기분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 | | | | | |
|--|---|--|--|--|--|
| <p>불자 정보 748호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p> | <p>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남해군 고현면 ●부지: 총 2123평 (중교부지165평) ●법당 15평(단청),산신각 5평(단청), 요사채 30평 ●저수지 물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양도가: 2억 3천 010-5430-3963</p> | <p>대형포교당(전세및양도) ●위치: 경기도 지역 고속터미널부근 부천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빌딩지역 ●평수: 22평 1층 / 5층 ●법당전체와 모든방사고급나무문양인테리어됨 ●법당앞에 200년 지하철개동주처장 100대 가능 ●가액: 임대 3억 5천(양도가)는 시설비 절충가능 011-707-5552</p> | <p>사 찰 안 내 ●위치: 울산 중구 유곡동 ●대지 50평, 건평 50평 ●모든 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가액: 보증금 5천만, 월 50만원 (전, 월세도 조정가능) 010-9990-5234 신현대부동산</p> | <p>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진해시 ●입법당: 20평, 대지 300평 ●요사채 별도 1동, 주차장, 화장실 (현대식 창고2, 법당맞기타시설완비) ●뽕만 오시면 편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담사 후 절충 010-2570-9566</p> | <p>탈 종 공 고</p> <p>●사 찰 명 : 약천사 ●주 지 : 상산 (이기옥) ●주 소 : 경기 평택시 도일동 173-1</p> <p>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중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p> <p>2009년 9월 9일</p> <p>대한불교대덕종 총무원장 법하</p> |
| <p>작은 토굴 ●위치: 강원도 홍천군 ●평수: 대지 110평 (건평 30평) ●입법당 ●가액: 1억원 033)434-2916</p> | <p>포 교 원 안 내 ●위치: 부산 시내 중심가 (지하철 3분거리) ●평수: 60평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844-3751 011-848-3647</p> | <p>포교원 안 내 ●위치: 대구시 동구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당 후 절충가능 010-4199-0047</p> | <p>포교당(급)안 내 ●위치: 부산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탕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법당40평, 방3개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2945-7704</p> | <p>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함안 ●대지140평, 뒷밭 28평, 법당 25평 ●요사채 30평형에, 스님방1, 창고 大, 小 2개, 건물 90평정도, 단독지하수 사용 ●화장실 겸 샤워실2, 부엌겸 거실1, 바깥뜰, 1. 마당까지 주차가능 ●가액: 1억1천5백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주지스님 건강 관제로 '급'양도 010-9466-1191</p> | |
| <p>사 찰 안 내 ●위치: 포항 도심 속 기도도량 ●50평에 약 100평 사용 ●2층 유계실, 공양간, 입법당50평, 내실, 사무실, 주방1, 욕실2, 외부 해우소 1 ●사무실 1500불, 용공문수동자200불, ●정원석 소나무3그루, 분재도 (외부 목성각, 소원석, 용궁, 약사동상) ●가액: 4억(절충가능) 주지스님 합장 ●주지 스님 사정상 급 안 내 017-516-5773 010-4502-7318</p> | <p>사 찰 안 내 ●위치: 경북 영주시 가흥2동 제일고등학교 맞은편 산중터 ●법당, 주방, 욕실, 산신각 ●가액: 2천 5백만원 (가액조절가능) 011-9370-7513</p> | <p>사찰(급)안 내 ●위치: 경남 밀양시 도심 속 100년 된 암자 ●법당20평, 요사20평, 산신각3평, 용왕당3평 ●포교하실 분 (비구니 스님)적합 ●대지 총 280평, 국유지(주차장)100평 ●가액: 2억 9천만원 055)355-1275 010-9313-1381 010-9411-3813</p> | <p>사 찰 안 내 ●위치: 경북 상주시 함창읍 ●대지: 총776평, 대지238평, 전538평 ●건물: 요사채 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산신각 2.5평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이상 (3년~4년생), 2006년 10월 등기, 대문까지 차량 진입 ●합창실에서 2분 ~ 3분거리, 점촌에서 5분 ●가액: 1억 2천만원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p> | <p>부 산 대 사 찰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주 있음 ●복조법당 25평 단청법, 복조요사 30평 단청법, 벽돌집 요사 2동 50평 ●광복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보일러 사용, 사찰내 주차 20대 이상 ●대지: 300평 ●국유지: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가액: 11억 5천만원 011-563-1545</p> | |